

평창동계올림픽 G-86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피겨 퀸’ 김연아가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했다. 김연아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채택하는 무대에 연사로 나서 4분간 영어로 올림픽정신을 강조했다.

김연아 “평화 위한 스포츠의 힘 믿는다” 라이차크 의장 “모든 나라가 평창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휴전 결의안이 UN총회에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13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평창대회 휴전 결의안은 ▲올림픽 기간 전후(개최 7일 전부터 종료 7일 후까지) 적대행위 중단 촉구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평창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연아 평창동계올

림픽 홍보대사는 UN총회에서 이례적으로 보 조발언 기회를 얻어 “올림픽을 두 차례 경험한 선수로서 스포츠는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촉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스포츠의 평화 기여를 강조했다.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UN총회 의장은 “모든 나라가 평창 대회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으며, 평창대회와 휴전 결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이차크 의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평창대회 방문 요청에 “평창대회 개최 즈음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평창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대회 전후 기간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하 한 이번 평창대회 휴전 결의안 채택은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려는 약속을 전 세계가 함께 결의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1라운드를 지배한 19세 센터 박지수

(KB스타즈)

리바운드·블록 외인선수를 제치고 1위에 어시스트도 4위...시아·패스워크도 발전 공헌도 점수 202.15점...토마스 이어 2위



프로 2년차 센터 박지수(19·청주 KB스타즈)가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다.

박지수는 팀당 5경기를 치르는 1라운드 기간 14일 현재 공헌도 부문에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공헌도 점수 202.15점으로 1위에 오른 엘리사 토마스(용인 삼성생명·229.30점)와 함께 단 둘이만 200점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선수를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다음 순위인 박혜진(우리은행·공헌도 순위 전체 7위)을 무려 70점 가량 월등하게 앞섰다.

개인기록은 국내선수 뿐 아니라 외국인선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평균 득점은 15.0점으로 공동 8위(국내선수 2위)에 랭크됐지만 리바운드 부문에서는 외국인선수를 따돌리고 1위(평균 14.80개)다. 블록은 더 압도적이다. 평균 3.60개의 블로킹으로 2위 산태 블랙(구리 KDB생명·2.20개)보다 경기 평균 1.40개를 더 기록했다. 국내선수가 리바운드와 블록 부문에서 외국인선수를 따돌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 국 고작 프로 2년차에 불과한 19세의 어린 선수가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어시스트다. 경기 평균 4.00어시스트로 전체 4위다. 프로 데뷔시즌과 비교해 동료들의 득점을 지원하는 플레이가 한결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쏠렸을 때 수비하는 선수가 없는 동료들 찾아내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워크가 업그 레이드됐다.

KB스타즈는 한층 더 성장한 박지수를 앞세워 1라운드에 4승1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에 나섰다. 신장 193cm의 박지수는 지난해 프로데 뷔 당시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이처럼 빨리 리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낼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는 많지 않았다. 몸의 밸런스와 파워 등이 아마 추어 무대와 프로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지수는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힘을 쓰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 뿐이



KB스타즈 박지수가 신인 티를 벗고 화끈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데뷔 시즌보다 향상된 기량을 앞세워 한국 여자농구의 대들보로 진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공헌도 전체 2위 숫자가 박지수의 위력을 입증한다. 사진제공 | WKBL

아니다. 밸런스 훈련에도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몸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몸의 밸런스가 한층 강화됐고, 외국인선수와 부딪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됐다.

그렇다고 박지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골밑 플레이의 세련미와 득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다. 본인 스스로도 “동료들을 찾는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내 득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1라운드에서 월등한 기량을 자랑한 박지수가 2라운드에서도 상승 페이스를 유지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지수의 활약이 계속 된다면 KB스타즈의 상승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현대건설 황원주(오른쪽)가 14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로공사전 도중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건설배구단

구멍난 리시브...영망이 된 도로공사

(서브 리시브)

2세트 도로공사 문정원 서브리시브 흔들 상대 목적타 서브에 공격패턴까지 뒤틀려 현대건설 블로킹 17개나...2연패 끊고 1위



배구는 기본적으로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 스포츠다. 안정적인 리시브에 이은 깔끔한 토스,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 공격까지 흐르듯 연결돼야 득점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어느 것 하나만 ‘엇박자’를 내도 과정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14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현대건설의 2라운드 맞대결이 벌어졌다. 두 팀은 V리그를 대표하는 창과 방패다. 도로공사는 리그 정상급 수준의 외국인선수 이바나와 국가대표 레프트

박정아를 앞세워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현대건설은 김세영과 양효진으로 이어지는 ‘트윈타워’ 센터진에 장진세터 이다영까지 내세워 ‘통곡의 벽’을 갖췄다. 단단한 방패로 이제까지 술한 장들을 부러뜨렸다.

뽀나나 뽀리나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만 같았던 대결은 의외의 과정에서 승부가 갈렸다. 도로공사가 공격은커녕 기본적인 세트 플레이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여며 자멸한 것이다.

경기 전 김종민 감독은 “서브 리시브에서 버텨줘야 단조로운 공격을 피할 수 있다. 패턴을 읽히면 현대건설의 높은 센터진을 뚫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 역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공사 세트 이효희는 다양한 공격 분배를 가져가는 선수다.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두 감독의 우려 또는 당부는 현실이 됐다. 도로공사는 2세트부터 문정원의 서브리시브가 크게 흔들렸다. 현대건설은 이 점을 노려 문정원 쪽으로 계속해서 목적타 서브를 넣었다. 3세트 까지도 계속해서 이 전략은 공격효율을 극대화시켰다. 도로공사는 서브 에이스를 내주거나, 공격이 연결돼도 단조로운 패턴공격을 이어가다 현대건설의 블로킹에 연이어 실점했다. 현대건설은 무려 17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렸다. 이는 도로공사가 기록한 블로킹(4개)의 4배가 넘는다.

현대건설은 블로킹 7개를 포함해 22점을 뽑은 양효희의 활약 덕분에 세트스코어 3-1로 이겼다. 최근 2연패에서도 벗어나며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반면 도로공사는 연승행진이 ‘3’에서 멈췄다. 연승중단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기본적인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수원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KGC 김민욱

KGC 김철욱

모비스 김동량

모비스 박형철

에이스 빠진 일주일, 백업들이 설렌다

프로팀 주축선수 10명 농구대표팀 차출 출전기회 적었던 선수들 가치 입증 찬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KBL 2018년 1라운드 2라운드 한창인 가운데 대표팀 소집 변수가 생겼다. 올해부터 국제농구연맹(FIBA) 2018농구월드컵(중국) 지역예선이 홈&어웨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프로농구에도 시즌 중 A매치가 펼쳐진다.

하계(52)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농구대표팀은 오는 23일 뉴질랜드(원정), 26일 중국(홈) 경기를 치른다. 이를 위해 농구대표팀은 13일부터 진 전선수중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대표팀 엔트리 12명 가운데 이승현, 허웅(이상 국군체육부대)을 제외한 10명은 프로팀에서 시즌을 소화하는 선수다.

대표팀에 주축선수를 내준 팀들은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를 치르는 감독들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동안 출전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KGC는 매 경기 20점·10리바운드를 책임졌던 대별보 오세근(30·200cm), 양희준(33·194cm) 없이 3경기를 치러야 한다. 특히 오세근 공백이 크다.

KGC 김승기(46) 감독은 오세근의 빈자리를 김민욱(27·205cm), 김철욱(25·203cm)으로 채운

다는 생각이다. 김민욱은 올 시즌 평균 9분 출전, 김철욱은 3분여 출전에 그쳤다. 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수비와 리바운드다. 데이비드 사이먼(35)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센터 이종현(25·202cm)과 슈터 전준범(26·195cm)이 차출됐다. 백업센터 김동량(30·198cm)과 가드 박형철(30·192cm)의 출전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김동량은 2011년 데뷔 이래 제대로 된 출전기회를 잡아 본적 없었다. 늘 백업 역할이었지만,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모비스에서 5시즌(군복무기간제외)을 묵묵히 버티 온 선수다.

12일 SK와의 경기에서는 16분간 10점을 몰아 넣는 활약을 했다. 김동량이 한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것은 2012년 1월 7일 오리온을 상대로 10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종현 공백이 생기면서 김동량은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생겼다. SK에서 이적해 온 박형철 역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됐다.

그 밖에 김시래(28·178cm), 김종규(26·207cm)가 빠진 LG는 양우섭(32·185cm), 정성우(25·178cm), 박인태(23·200cm)의 출전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랜드(박찬희), KCC(이정현), SK(최준용), kt(허훈) 등을 대표팀에 보낸 팀의 백업멤버들도 상황에 따라 출전시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반면 DB, 삼성, 오리온 등 대표팀 차출이 없는 3개 구단은 전력누수 없이 이번 주 일정을 소화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어머니와 함께 수영’ 생활체육 수기공모전 대상

대한체육회, 공모전 홈페이지 당선작 발표

금상엔 ‘딸에게 물려줄 작은 비밀’ 선정 스포츠클럽 브랜드 수상작 18편도 발표



대한체육회가 최근 생활체육과 관련된 의미있는 두 건의 행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스포츠7330 생활체육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대한체육회는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캠페인 참여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했다.

총 232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심사에는 정철의 한국체육인론학회 부회장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생활체육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현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양지영씨의 ‘어머니와 함께 수영’에게 돌아갔다. 금상 ‘딸에게 물려줄 작은 비밀(이인영)’은 출산 후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막 태어난 딸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여운을 남겨 우수작으로 평가됐다. 대상에게는

상금 15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졌다. 자세한 수상결과와 공모전 홈페이지(www.contest-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총 18편도 발표했다. BI 부문에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열린 스포츠’, 포스터 부문에서는 ‘스포츠클럽으로 뛰자’, 네이밍·슬로건 부문에서는 ‘스포츠락(樂)’같이 즐기는 스포츠, 가치 높은 스포츠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필요성과 손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사설 스포츠클럽과 차별화되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8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스포츠클럽 브랜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